

믿음의 사람들 X.

인내의 시간을 해석하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실족하게 됩니다.

1. 솔직함

진리는 정직함을 기초로 한다. 진리의 속성에는 조금의 조작도 숨김도 없어야 한다. 진리가 조작되면 '타락'의 상태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솔직하다. 정직하다. 조금의 조작도 꾸밈도 없다. 보통 사람은 약점이나 잘못을 숨기려 하는 본능이 있다. 이 본능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욕의 인간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죄성'이라 말할 수 있다. 왜 숨기려 할까? 그 이유는 수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에게는 수치심이 나타난다.

수치심이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쓰레기'처럼 쓸모없게 여기는 것이다. 수치심의 단계는, 존귀함을 받아야 할 인간의 정체성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수치심'이 무엇인지 알았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상태인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숨기로 결정한 것이다.

[창세기 3:10]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솔직함과 정직함이란 무엇인가? 죄로 인해 주어진 결과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서있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존귀한 정체성을 파괴시키지 않고 지키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솔직하고 정직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으로 볼 때 쉽지 않다. 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결과에 대한 '각오'이다. 이것을 결정하는 단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용기이다.

'용기'는 믿음의 속성이며, 진리이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는 단계이다.

2. 솔직함에서 바라본 인생

신앙생활은 '진리'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정직하다. 그 정직함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에 구원이 임했다.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된다. 완성된 구원은 '고통, 아픔, 눈물, 어려움, 억울함, 두려움'이 없는 상태이다.

이미 신앙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 고통, 아픔'의 파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생활은 '예수 믿고 만사형통'이 아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 아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속이면 안된다.

3. 고통과 아픔은 인간에게 좌절을 준다.

실제로 인간은, 내 힘으로 넘기 어려운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좌절'을 한다. 자신의 예상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인간은 당황한다.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나 좌절의 상태는 내 바람과 실상이 맞지 않을 때를 말한다. 바로 이 때가 믿음에서 실족할 수 있는 상태이며, 시험될 수 있는 상태이다.

믿음의 원리에서 볼 때, 다시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 바람과 실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절망에 빠진 내 마음이 다시 소망의 마음으로 복구가 되어야 한다. 이 복구과정이 '인내'이다.

4. '인내' 의 시간을 해석하지 못하는 신앙

인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다. 모든 것을 불가능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러나 인간은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부족함' 을 느끼는 그 공간을 어떻게 복구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복구할 수 있는 답은 단 하나이다. '인내' 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믿음생활을 말하며, 믿음생활이란 '인내' 의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내의 시간을 해석하지 못하면 결국 좌절한다. 믿음에서 멀어지며 실족한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좌절' 할 수 있는 존재이며,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인간이 복구될 수 있도록 '인내' 라는 기간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 를 통해 다시 '소망' 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로마서 5: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히브리서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결국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에 이르게 한다. 믿음의 정의가 기록된 [히브리서 11:1] 말씀에서의 '바람' 은 무엇인가? '소망' 이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 소망이 다시 우리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현실이 된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원리가 된다.

5. 인내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 바울의 에베소 전도

[사도행전 19:6-8]

6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8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그 당시 문명이 가장 발달된 도시 중의 하나인, 에베소라는 곳을 전도하기 위한 비전을 품는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먼저 12명 정도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 (6-7절). 바울은 그 마음으로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했다(8절). 그런데 바울은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복음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경험한 것이다.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바울을 비방하거나 핍박하는 무리들이 나타난 것이다.

[사도행전 19:9]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에베소를 전도하기 위한 자신의 비전이 좌절된 상황 앞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에베소로 갔을 때, 바울은 이런 난관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가운데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갔다. 그러나 현실은 좌절이다. 이 때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난관 앞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울의 마음은 좌절됨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원리를 알았다. 무엇보다 에베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비전과 소망으로 복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인내' 를 선택했다.

[사도행전 19:9-10]

9 ~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10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6. 믿음의 '임계점 (the critical point)'

임계점이란? 물질의 액체상과 기체상이 균형을 이루는 점이다. 즉, 물은 99도가 되어도 끓지 않는다.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게되며, 그 물은 증기가 되어 기체로의 상변화가 가능하게 된다.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인내' 의 시간은 모든 에너지가 변화의 임계점에 이르는 시간과 같다.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다. 바울은 두란노에서 2년간 '인내'하며 에베소의 변화를 위한 믿음의 '임계점 (the critical point)' 을 만들었다. 그는 성전에서의 저항을 경험한 후, 오히려 두란노에 남아 2년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더 나아가 에베소 도시에 '우상' 을 섬기는 경제 시스템이 파괴되고(19절), 주의 말씀이 흥왕하며 세력을 얻었다. 믿음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 결국 에베소 전도를 향한 바울의 바람은 현실이 되었다.

7. 인내의 시간은 '임계점' 의 에너지가 모여지는 순간이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야기가 있고 감동이 있다. 삶은 스토리이다. 스토리가 필요한 세상이다. 스토리는 콘텐츠가 된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세계 최고의 스토리이고, 콘텐츠이다.

인내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며,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시간임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이 시간을 소망함으로 기쁘게 여겨야 한다. 반드시 바람은 현실이 된다.

8. 임계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타락 이후 죄의 저항에 부딪힌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바울처럼 '인내' 의 시간을 구간으로 두신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서 임계점의 정점에 오신 분이 예수님 이시다. '예수님' 을 통해서 인간은 원형의 본질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었다.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기쁨으로 '인내' 의 경주를 하자. '인내' 의 시간을 경멸하는 현대 사회속에서, '인내' 의 시간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시간인지를 알게 해야한다.

기다림이 없는, 단정과 속단이 강력한 세상은 결국 실패자를 더 많이 생산해 낼 것이다. 실패를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은 결국 망한다. 이제 인내를 통한 진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결국 승리할 것이다. 아멘.